

 <b>보험연구원</b> <small>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</small>	<b>보도자료</b>				
	<b>보도</b>	<b>2021.7.13.(화) 15:00</b>	<b>배포</b>	<b>2021.7.12.(월)</b>	

<b>담당부서</b>	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	윤영준 실장(3145-7240), 이태기 팀장(3145-7242) 조영현 실장(3775-9032), 노건엽 연구위원(3775-9039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 「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」 세미나 개최

-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(RBC제도)의 10년을 되돌아보고 2023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(IFRS17) 下에서의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,
  - 2021.7.13(화) 보험연구원 · 한국리스크관리학회(후원 : 금융감독원)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가 온라인(YouTube)으로 개최
-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
  -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
- 금번 세미나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(RBC제도)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, 보험회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, 미래 발전방향 등을 학계, 업계 및 감독당국에서 각각 주제 발표하였음
  -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의 발전과 미래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
    - ※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보험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 중계
  - 2023년 시행예정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(K-ICS)의 발전방향을 모색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
<http://www.kiri.or.kr>

<붙임1>

##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세미나 안내

### < 세미나 개요 >

- 주제 :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
- 일시 : 2021년 7월 13일(화) 15:00~17:00
- 중계 : YouTube 보험연구원 중계채널
- 주최 : 보험연구원 · 한국리스크관리학회(후원 : 금융감독원)

시 간	내 용
15:00 ~ 15:05 (5분)	<b>【개회사】</b> : 김재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
15:05 ~ 15:10 (5분)	<b>【축사】</b> :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
15:10 ~ 15:30 (20분)	<b>【주제발표Ⅰ】</b> :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- 위험기준 자기자본(RBC)제도 운영경과 및 변화
15:30 ~ 15:50 (20분)	<b>【주제발표Ⅱ】</b> :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-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
15:50 ~ 16:10 (20분)	<b>【주제발표Ⅲ】</b> :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-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경영
16:10 ~ 17:00 (50분)	<b>【패널토론】</b> [사회자, 발표자 포함 8명] - 사 회 : 정세창 (홍익대학교 교수) - 토 론 : 김원일 (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사) 박규서 (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) 조재훈 (영남대학교 교수) 최부규 (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)

## 세미나 주제발표 주요내용

### ①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

#### - 위험기준 자기자본(RBC)제도 운영경과 및 변화

- 2009년 보험회사 건전성 제도인 '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'(RBC제도) 도입 후 개선 경과 및 위험액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
  - (도입배경) 위험 중심의 예방적·선제적 감독 체계 도입을 위해, 기존의 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하는 '위험 기준 지급여력제도'(RBC 제도)를 2009년 도입
  - (개선 경과) 통계적 신뢰수준 상향(2014년),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비율 산출(2016년) 및 부채듀레이션 강화(2017년) 등 RBC 제도를 지속 정비·강화
  - (위험액 변화) 2011년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보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보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\*
    - \* 손보사는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하여 신용위험액이 증가하여 왔고, 장기손보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액 비중도 확대
  - (향후 발전방향) 2023년 부채 시가평가,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하여 新지급여력제도(K-ICS 제도) 도입을 준비

### ② 노건업 보험연구원 연구위원

#### -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

- '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'을 주제로 「자본 규제」, 「감독당국 점검」, 「시장 규율」 각각의 관점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
  - (자본 규제)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,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

-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 변동성이 심화되므로,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
-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뉴딜 펀드, 인프라 및 ESG 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
- (감독당국 점검) 보험회사가 K-ICS 제도에 부합하는 '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'(ORSA)를 운영하도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요
  - K-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려우므로,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
- (시장규율)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를 강화
  - 보험회사는 K-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고,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

### ③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-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경영

- 지급여력제도의 역할과 보험회사 경영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, K-ICS 제도 도입 관련 보험회사 대응 방안을 논의
  - (역할 및 효과) 지급여력제도 운영의 비용·효익을 살펴보고, 소비자후생 및 보험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안내
    -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지급여력제도 설계·운영의 중요성을 강조
  - (경영성과) 운용자산이익률, 손해율 등 경영지표와 지급여력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, 생·손보사 및 회사규모에 따른 차이를 설명
  - (K-ICS 이슈) K-ICS 제도 도입에 대한 보험 회사의 부담과 대응 이슈를 알아보고, 국내 손보사의 대응 사례를 발표